신종플루 과잉공포 부작용

잇단 행사 취소에 경기회복 찬물

‘가을 특수’ 기대한 관광·유통업계 직격탄

신종플루 공포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들이 잇따라 휴교에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대형 행사들을 취소·연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을 축제와 수학여행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대회 개최 일정을 절반으로 축소해 치러지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10월20일~31일)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축제 등 각종 행사 취소만이 능사? =신종플루 공포가 부풀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가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광주시 3대 축제인 세계광엑스포, 김치문화축제, 디자인비엔날레가 취소·연기되거나 축소됐다. 전남도 명량대첩축제도 축소됐다.

기초단체들이 개최하는 지역 대표 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광주 남구 효사랑녹색문화산업전, 신안 흑산홍어축제가 취소됐고, 광주 충장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광양 전어축제, 순천 갈대축제 등도 무기한 연기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신종플루 여파에 따른 행사 파행은 교육·문화예술계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전남평생학습축제가 취소됐으며 광주평생학습축제는 무기한 연기됐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가을 수학여행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립예술단체 공연 등 광주문예회관이 주최하는 각종 공연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1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즈 빅밴드와 유열이 함께하는 싱싱싱’ 공연과 11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광주시립교향악단 야외음악회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평균 치사율이 0.1%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치사율은 절반 수준인 0.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승철 국가 신종인플루엔자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신종플루와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을 축제 특수 기대했던 관광·유통업계 충격=지역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그동안 지자체들이 쏟아부은 막대한 홍보 예산이 물거품 됐다. 또 축제를 통한 지자체 홍보,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매 등 부대 행사를 통한 경제적 효과들도 사라졌다.

특히 가을 축제와 수학여행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관광버스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신종플루 여파로 작년보다 90% 이상 수요가 줄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 지역 유통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항균제품과 손 세정제 등 일부 관련 상품이 품귀현상을 보인데 반해 문화센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강좌 폐지가 속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종플루’에 막힌 광주·전남지역 행사

행사명	일정	개최여부
■광주		
세계광엑스포	10. 9~11. 5	취소, 내년 개최 검토
김치문화축제	10. 23~11. 1	취소 검토
디자인비엔날레	10. 18~	행사기간 절반 축소
남구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9. 23~27	취소
제8회 광주평생학습축제	9. 18~20	무기연기
■전남		
제3회 흑산 홍어축제	9. 12~13	취소
2009 명량대첩축제	10. 8~11	기간단축, 실내행사 폐지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	10. 9~11	취소
F1모형 자동차 전시체험행사	10월말	취소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11. 6~11	무기연기
2009 여성취업·창업 박람회	10. 8~9	취소
2009 뷰티풀 챌린저	9. 15~18	노동부와 협의중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 21~25	문광부와 협의중
■문화·예술계		
재즈 빅밴드와 유열이 함께하는 싱싱싱 공연	9. 10	취소
광주시립교향악단 야외음악회	9. 11	취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작뮤지컬 공연	9. 13	무기연기
광주시향 250회 정기연주회	9. 18	무기연기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고 가운데 최근 광주 서석초등학교 정문에서 교사들이 고막형 체온계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박람회 주·부제관 전시콘텐츠 제안 공모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엑스포 주제관, 부제관 등 전시관에 전시할 연출 콘텐츠를 제안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제관과 부제관은 여수엑스포의 핵심전시관으로 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대한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고 우수한 해양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조직위는 전시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기본계획을 반영, 확정한 뒤 내년에 각각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관의 전시연출에는 206억원이, 부제관 전시연출에는 132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해양산업기술, 해양과학, 에너지 등 관련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기후환경과 해양생물,해양산업기술,해양도시문명의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조직위는 또 콘텐츠 제안공모와 함께 전시관별 주제분야 전문가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관련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향후 전망 등 전시업체의 컨셉디자인, 기본구상 및 전시계획수립 등 콘텐츠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직위는 이와함께 해양한국의 비전과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주최국 대표공간인 ‘한국관’에 대한 전시연출 제안 공모도 오는 1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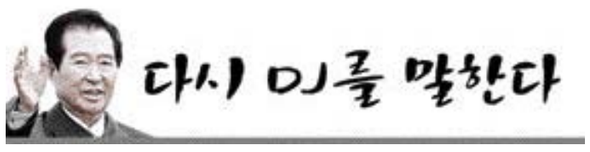
황규연 조직위 전시운영본부장은 “전시관별로 기본계획을 제안받아 전시업체를 선정하고 콘셉트 디자인을 건축 기본 설계단계에서 반영해 콘텐츠를 고려한 최고의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제관과 부제관의 전시제안 요청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여수세계박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expo2012.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힘 합해 망국적 지역감정 없애자”

DJ 깜짝 제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❻ 김중권 前 청와대 비서실장

DJ 아이디어 박정희 기념관 화해 메시지 담아

동서화합 완전한 성공 못했지만 국민통합 토대

“동서화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시던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 합니다.”

국민의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동서화합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중권 전 실장은 아직까지 지역주의의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는데 대해 깊은 회한을 나타냈다.

김중권 전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정통 TK(대구·경북) 출신. 경북 울진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민정당 간판으로 정계에 진출, 11, 12, 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노태우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맡은 바 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치 활동을 쉬고 있었던 그는 DJ의 강력한 권유로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 최초의 호남 출신 대통령 당선과 수평적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한다.

지난 3일 서울시청 인근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중권 전 대표는 “대통령 당선 다음날 DJ가 일산 자택으로 불러 ‘초대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고 당부해 깜짝 놀랐었다”며 “당시 나는 ‘국민의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사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며칠 뒤 DJ가 재차 나를 불러,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감정이 다시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당신과 내가 힘을 합해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셨다”며 “DJ의 이 같은 거듭된 당부에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DJ의 동서화합 의지에 대해 “대통령 당선 직후 첫 방문 지역이 대구·경북이었다”며 “특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DJ의 아이디어로 ‘박해받았으나 살아있는 대통령이 가해자인 전임 대통령을 용서한다’는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국민의 정부에 영남 인사들을 적극 중용한 것은 물론 경북의 유교 문화 육성,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 등에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직접 동서화합을 실천하셨다”며 “특히, 이 같은 동서화합 정책은 나중에 노무현 정부 출범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보수 기득권 세력과 일부 언론들이 DJ의 동서화합 정책에 대해 호남 세력이 마치 영남을 잠식하는 듯한 ‘동진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민심을 자극하는 등 끊임없이 흠집 내기에 나섰었다”며 “이 같은 일부 세력의 방해에 DJ는 나에게 ‘전국을 돌면서 동서화합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지역주의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과 관련, 김 전 실장은 “DJ의 동서화합 정책은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국민 통합의 건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다만, 동서화합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개선(행정구역 개편 및 정치개혁) 등이 맞물려야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 같다”고 말했다.

DJ의 햇볕정책과 관련, 김 전 실장은 “일부에서 DJ의 햇볕정책에 대해 ‘퍼주기’라고 폄하하는데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햇볕정책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화해, 나아가 평화 통일을 위해 이뤄졌던 가치 상호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김 전 실장은 “햇볕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북한은 변화에 나서 궁극적으로 남북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 낸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별이었다”며 “그가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지역감정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1999년 8월9일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김중권〈가운데〉 비서실장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